

흙살림
HEUKSALIM



흙살림아, 유기농을 부탁해!



축하공연 · 농장 둘레길 투어 · 전시회 등
6월 11일 흥겨운 흙살림 축제 한마당 펼쳐

흙살림이 6월 11일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농업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축하 속에서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토종농장에서는 “흙살림 25년, 유기농의 미래를 본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행사를 갖는다.

사진과 동영상 통해 흙살림의 지나온 발자취를 회고하고, 새로운 25년 흙살림의 미래와 유기농의 진로를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소비자와 생산자, 농업인과 예술인, 농촌과 도시 모두가 하나되어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충북문화재단 조동연 명창의 소리와 사할린 동포들의 아

코디언 연주 등 축하잔치가 흥을 돋울 것이다. 현재 흙살림 토종농장에서 농사를 직접 배우고 있는 오철수 시인의 시집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와함께 창립 25주년을 계기로 농업과 예술을 접목하는 장기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사단법인 ‘흙과도시’와 협력하여 토종농장 둘레길을 조성하고 예술품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옥상 화가와 김종구 조각가의 작품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도 흙살림은 농업과 과학이 하나가 되고, 농업과 예술이 서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목을 시도해 나갈 것이다.



흙살림 창립 25주년 기념식이 치러지는 흙살림 토종농장에서는 임옥상 화가의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흙살림 25주년 기념행사 식순 안내

시간	기념식	전시, 상영 행사
~10:30	도착, 접수	
10:30~12:00	1부 기념식	축하공연/ 시상식
		흙과예술 작품제막식
		농장투어
12:00~13:00	점심식사	전시회 흙살림 25년 유기농의 미래를 본다! - 사진전시회 - 세밀화전시회
13:00~14:30	2부 축하잔치	
13:00~16:00	3부 체험행사	
16:00~16:30	폐회, 환송	

인사말

흙살림 25주년을 맞이하여

-이태근 흙살림 대표

흙살림이 1991년 6월 11일 작은 미생물 연구소로 출발한지 어느덧 25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 저도 괴산 지역에 자리 잡은 지만 32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농민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괴산을 찾아온 것이 엇그제 같은데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2년 동안 겪었던 많은 우여곡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수 없이 겪으며 이 자리에 왔지만 과거를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화창한 날 친한 농민들과 함께 강가에서 천렵을 하며 즐거웠던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뜻, 좋은 기억을 공유하며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어쩌면 이를 연

료 삼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농민들과 주위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흙살림은 2016년 6월 현재 10,000여 명의 농민회원과 100여 명의 임직원이 일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유기농업과 관련된 생



산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유기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함으로써 유기농업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흙살림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우리나라 유기농업을 희망으로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한반도 전체가 유기농업화 되는 꿈을 다시 꾸어봅니다. 25살, 열정과 패기로 가득한 젊은 청년처럼 앞으로의 길을 또 걸어가하고자 합니다. 흙살림이 변화와 혁신을 향해 나가는데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질책을 바랍니다. 생애, 공정, 배려, 건강이라는 유기농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고 우리 농업이 바로 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생물 연구회로 시작

1991년

6월 11일 괴산미생물연구회 창립(김용길 회장,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



1993년

휴살림연구모임 창립, 전국회원 모집

1994년

휴살림생활농장 운영
휴살림연구위원회 발족(서현창 위원장)
환경보전형 생산소비단체 협의회(현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참여

1995년

담배인삼공사 공익사업단 연구사업 수행
(음식물 쓰레기처리 실용화모델 개발 연구)



휴살림 현장농민연구원 위촉 (10명)
휴살림연구소 신축이전(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및 휴살림 회원대회

1996년

충북 유기농업 명예연구소 지정
천주교 환경대상 수상
미생물비료 생산업허가 신청
농림부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 설립인가
괴산군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시범사업 착수



1997년

휴살림 중소농단지 대표자모임(수안보)
'97 휴살림 회원대회 개최(괴산읍 제월리 제월 분교)

1998년

휴살림 미생물 제조와 활용 전문강좌 개설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강좌(사료화, 퇴비화)
휴살림-충북대 교수협력단 발대식
휴살림 제주지부 준비 세미나
한살림 쌀생산자 교육
천주교 한마음한몸 운동회원교육, 휴살림 순환농법 교육(32회)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교육(28회)
청원 오창농협 휴살리기 교육(30명)

1999년

충북 농산물 쇼핑 관광(그린투어 숲) 코스 지정
휴살림순환농법 보급(강화, 아산, 안성)
휴살림 회원 2,000명 돌파
휴살림 홈페이지 개설(<http://www.heuk.or.kr>)
주식회사 휴살림 설립



2000년

휴살림 환경농업교육장 기공식
휴살림 회원 2,500명 돌파
2000 휴살림대회 및 환경농업교육장 준공식
오창벤처공단 내 입주신청

2001년

휴살림 회원 3,000명 돌파
홍천 내면지부 창립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신청
휴살림 진안군 동향면지부 창립
휴살림 안성시 배연구회 준비위 창립
휴살림 활동가 연수회



2002년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공급업체 신청
한국생협연대 생산자연수회(괴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국내 1호)
대구 휴살림 창립
영월 휴살림 창립
장수 휴살림 창립
휴살림 제주연합회 창립
양평지회 창립준비모임
보성,해남지회 창립 준비모임
휴살림 회원 5,000명 돌파

해남 휴살림 창립
안성 원곡면 휴살림 창립
휴살림 서울사무소 개소 (aT센터)
옥천 휴살림 창립
남원 휴살림 창립
상주 모동면 휴살림 창립
홍성 홍동면 휴살림 창립

2003년

괴산 감물 휴사랑 모임 창립식
제주 대구모지구조성사



2004년

음성 휴살림 창립
휴사모(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창립
쿠바 실험농장 개장식

2005년

나주 휴살림 배연구회 창립
무안 청계지회 창립
휴살림 CI 선포식
농업회사법인 휴살림 푸드시스템 설립

2006년

충북유기농업명예연구소(휴살림연구소) 충청북도 표창
괴산 휴살림지부 창립
지역 휴살림조직 대표자 간담회
북한 금강산지역 애국복합미생물공장 방문
햇빛발전소 설치, 가동(휴살림 괴산 교육장)
휴살림 전통농업위원회 발족

2007년

합천 해인사지회 창립
농촌진흥청 퇴비원료분 석기관 지정
휴살림 유기농 시범농장 개장(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생명평화탁발순례와 함께하는 한미FTA토론회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앵천리 528) | 발행처 (사)휴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이태근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앵천리 528)·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363-885)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363-923)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367-912)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전송 043)833-5007 | 휴살림연수원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앵천6길 11-1·전화 043)833-5004·전송 043)833-5007

교육·자재·유통 등 유기농 종합 서비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가입
 인증지도사 연수회
 청원 흙살림 창립
 고령 다산면 흙살림 창립
 흙살림 지역대표자 연수회

업 준공식 참석
 우렁이농법연구회 창립
 흙살림 회원 6,200명



지역 흙살림 교류회(제주도)
 2004 흙살림 인증농가 대회(오창, 900명 참석)



흙살림 미생물 북한 애국미생물비료공장 공급
 충주 장안농장과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식
 흙살림 서안성지회 창립
 고흥군/흙살림 업무제휴 협약식



문백농협 특수미작목회와 잔류농약분석 업무협력 협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 지정
 한국농촌공사 한국농촌대상 연구개발부문 수상

2008년

고흥군지부 창립
 충남지역 인증농가와 흙살림 긴급간담회
 중국 흑룡강성 유기벼협회 방문(이태근, 최관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인증
 이탈리아 세계 유기농대회 참가(이태근, 신제성)
 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
 청주시 공무원 친환경농업 마인드 교육(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흙살림 업무협약
 제1회 흙살림 토종전시포 방문의 날
 흙살림생협 창립 발기인 총회
 제3회 농협문화복지대상 농업발전부문 대상선정

2009년

흙살림 토종종자 교육
 흙살림 토종영농사업단(60명) 출범,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창립
 친환경농산물 금요일직거래 장터 개장 (오창)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흙살림 캠퍼스 친환경경종/채소반 개강
 상자텃밭 분양행사 (서울 청계광장)
 (사)두꺼비친구들-흙살림 두꺼비서식지 보존 업무협약
 국립작물과학원 논생물다양성 조사팀 흙살림 농장 방문
 농식품부 흙살림 친환경 귀농귀촌교육 1기/2기 진행
 서울 수서주공아파트 상가 흙살림 매장 개장
 일본유기농업연구회 업무협약 및 사토기사쿠 회장 초청강연
 KOICA 미얀마 흘레지구 유기농업 시범단지조성

2010년

국제인증연맹(Cert All) 연례회의 참석
 괴산군 14면 새해영농설계 친환경농업 맞춤형 교육 진행
 흙살림 도시유기농업리더 교육과정 개설
 일본유기농업연구회 전국대회 참석
 청원군 6개 지역아동센터 도시텃밭만들기 교육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전국 15개 도시 상자텃밭 1만 5천개 보급
 서울 송파구 솔이텃밭 흙살림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 진행
 청주시 율량/사천동 흙살림 토종 텃논 분양
 서울 은평구 도시농부학교 친환경농업 교육 진행
 괴산군 흙살림 토종수집단 발대식(단장 안완식)
 흙살림 유기농 요리책 제작을 위한 요리기능장 요리시연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출범(회장 이태근)
 충북도/흙살림푸드 충북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협

약체결
 한국식품영양학회 동계 학술대회 주제발표(이태근, 이성원)
 노동부 우수사회적기업 발굴대회 우수사례 홍보부스 참가
 도시유기농업 활성화 업무협약(그린 트러스트)

2011년

흙살림 창립 20주년
 삼지농부와 함께 유기농 가게 <농부로부터> 개장
 토종연구소 개소
 텃밭상자 보급 운동
 작은텃밭 그로우백 제작
 이태근 회장 윤봉길 농민상 수상
 세계유기농대회 토종종자 사전학술대회



2012년

노들섬에 토종벼 80여종 분양
 이태근 회장 제22회 일가상 농업부문 수상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로 명칭 변경
 서울 광화문 논농사 프로젝트 <현장농민연구원> 추진
 <어린텃밭> 등 도시농업자재 개발
 흙살림 꾸러미 100회 발송

2013년

토종순례단 운영
 흙살림연구소 장기귀농학교 개강
 서울시청 관장에서 토종 미니박람회 개최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사업자 선정
 흙살림연구소 현장실습교육장(WPL) 선정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토종연구회 추계학술대회
 농산물직거래 콘테스트 꾸러미 부문 우수사업자 선정



2014년

흙살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괴산군유기농업리더양성교육 개강
 흙살림 꾸러미 우체국 쇼핑몰 입점
 충해 관리용 자재 흙살림 <갈잡아>개발
 흙살림 꾸러미 200회
 GS 수퍼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흙살림 푸드 청주센터로 확장 이전
 <제1회 흙살림상> 성기남 회장 수상
 잔류농약 분석 320항목 확대
 아시아유기농업대회 참가자 현장 투어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이해 워크숍 주관
 모바일 쇼핑몰 개강
 흙살리기 대토론회 주최
 <제2회 흙살림상> 이일웅씨 수상
 모잠비크 소농지원 절염소 구매 모금운동

2016년

한국 최초 친환경 유기질 비료 필리핀 수출
 지역주민 초청 장수사진 촬영 및 한방 진료





휴살림은 우리나라 유기농업 정착에 큰 기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휴살림의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휴살림은 1991년 괴산미생물연구회를 토대로 휴살림연구소 개소 이후 유기농업에 대한 시대적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로 우리의 토양 환경을 살리는 유기농업의 정착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휴살림은 지난 25년간 농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흙을 살리고 우리 토양과 기후에 맞는 농사법을 연구·개발·보급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아울러 최근 휴살림이 유기농업자재 수출사업으로 국내 유기농업자재 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킨 일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휴살림을 비롯한 친환경농업단체의 기여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친환경농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탄탄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외식, 유통·수출 등 적극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한, 한·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안전프리미엄 상품(Premium Commodity)으로서, 향후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살림이 추구하는 유기농업은 우리 농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농식품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휴살림을 비롯한 우리 농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희망찬 농업·활기찬 농촌·행복한 국민'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휴살림 설립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휴살림과 회원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유기농업 미래 이끌어갈 기원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존경하는 휴살림 연구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덕흠입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과 흙과 농업 그리고 환경을 살린다는 사명감으로 유기농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휴살림 연구소의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기농의 미래를 함께 그려 보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태근 휴살림 연구소 대표님을 비롯한 휴살림 연구소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창립 25주년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흙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지난 25년간 유기농업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접근의 토양 관리 방법을 궁리해 오신 휴살림 연구소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기틀과 미래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과 더불어 사는 농촌 문화 발전을 우리 휴살림 연구소가 선도해 나가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흙 지킴이의 더 큰 도약과 발전 기대

- 이시중 충청북도지사

휴살림 창립 25주년을 충북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을 살리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해온 이태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살림은 1991년 괴산 미생물연구회 창립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연구, 실천하는 농민을 조직화 하였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토양을 살리는 휴살림 고유의 순환농법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등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정착과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농업의 기본인 흙을 살리기 위해 전국 만 여명의 회원농가와 함께 현장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유기농자재 보급, 식품안전을 검사하는 전문분석기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분석기관, 토종종자 발굴·보급단체, 친환경유기농업 교육기관 등유기농 사업을 왕성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시에는 홍보활동과 함께 전국 1만

여 회원의 단체관람을 적극 지원하는 등 엑스포 성공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엑스포 바

이어서 상담 성과로 필리핀에 국내 최초로 유기농자재 24톤을 수출하였으며, 부탄을 방문하여 한국의 우수한 유기농업을 소개하고 유기농자재 수출 협의, 부탄 유기농 교육생 방한 지원 등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일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휴살림은 '유기농업의 과학화'의 기치아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기농 기업으로, 휴살림 25년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유기농사 25년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유기농업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고, 충북 유기농업 더 나아가 대한민국 유기농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휴살림 창립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흙살림의 개척정신 높이 평가

-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지난 25년 동안 우리 농업의 유기농화·친환경화를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해 온 흙살림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이후 4반세기 동안 유기농업의 과학화를 시작으로 교육, 컨설팅, 인증, 유통 등 관련된 모든 분

야를 개척해온 흙살림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개방화시대 경쟁력제고를 위해 노력하던 90년대에 환경과 생태 보존이라는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것



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흙살림이 개척해 온 길을 높이 평가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객·현장·정책 중심'의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보급, 발농업 기계화,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등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노력이 흙살림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열정과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을 국민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자 쉼터로 가꾸어 나가는 데 흙살림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흙살림 25주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흙은 생명의 어머니

-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전 농림부 장관

먼저 국내 제1호 민간연구기관, “흙살림연구소” 창립 25주년을 축하한다.

1984년 새파랗게 젊은 농학도 이태근이 그 좋은 취직자리 유혹을 뿌리치고 낯설은 괴산군으로 귀농하여 국내 최초의 미생물연구소를 차렸을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흙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한 연구, 그가 실천한 작업, 그가 손댄 일들, 하나 하나 모두가 '죽음, 죽임'으로부터 온 우주의 생명을 살리고 살려내는 심오한 철학과 사상이 우려난 것들이었다. 그가 엮어 지어낸 책 "흙은 생명의 어머니, 흙을 살리는 길 (도서출판 한살림, 1996)"은 평생 흔들리



지 않고 한결같이 믿고 따랐던 철학적이고 흙살림 연구소가 걸어진 길이기도 하다.

미생물 연구는 미생물 비료, 미생물 작물보호제, 살아 숨 쉬는 퇴비, 유기농자재 개발, 유기농 재배기술, 친환경 유기농보급, 유기농 인증, 토종종자 보전 및 개량보급, 꾸러미에 의한 도시소비자 밥상살림, 그리고 도시농업 기술의 보급과 확산 등등, 거의 모두가 동류의 국내 최초 민간연구소로서 국내 아니 세계 제1호 사업목록들이었다. 이미 동연구소가 개발 보급한 흙살림 기술과 자재들이 해외로 주문 수출되기에 이르렀다. 아, 이 얼마나 거룩하고 기릴 일인가!

괴산 친환경농업군 성장의 기틀

- 김창현 괴산부군수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발자취를 함께 밟아온 흙살림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4만여 괴산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생태유기농업의 근간이 되는 친환경농업인 양성을 위해서도 온 정성을 쏟아주신 흙살림 이태근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흙살림은 1991년 괴산미생물연구회를 시초로 2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으로 우리 괴산군이 친환경농업군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행농업이 주를 이루고 외국의 유기농업 기술과 미생물에 의존하던 당시의 농업현실에서 토종미생물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굴의 노력을 기울여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흙살림이 최초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1호 지정이라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토종종자를 수집,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괴산군 토종작물 자원 도감>의 발

간은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의 기본인 토종종자를 '왜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가?'에 답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지난해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유기농업군'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농업군으로서의 이미지에 걸맞게 친환경농업이 우리 군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흙살림 창립 25주년을 괴산군민 모두와 함께 축하드리며, 흙살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초심 간직한 흙살림에 감사

- 주형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흙살림의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시절부터 흙살림운동을 시작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초심을 잃지않고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을 꾸준히 해오신 여러 선배님들과 동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흙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땅에 유기농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땅과 농업은 그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흙살림의 25년은 더욱 의미있고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흙살림이 유기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데 그 어느 단체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것은 우리 아이들이 흙의 소중함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흙에 대한 교육에 더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생명인 흙에 대해 더 잘 알고 깨달아 흙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흙살림이 한국유기농운동이 한걸음 더 넓고 깊게 진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살림 25년, 유기농의 미래를 본다

축하의 말씀

생명 평화의 가치 확산 선구자 역할 계속 기대

-이시재 흥과 도시 대표



홍살림 창립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살림은 25년전 비료, 농약, 제초제 등 화학물질을 바탕으로 하는 관행 농업이 확산되고 있던 시기에 마치 시대를 역행하듯이 농업의 틈새를 비

집고 유기농운동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태근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구자들은 흙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농업의 근본이라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고 묵묵히 유기농 보급에 노력해 왔습니다. 유기농운동은 그 동안 거대한 생산자 조직을 만들어냈고, 생활협동조합등 소비자 조직의 확산과 맞물려, 도시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유기농산물은 일반 식품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되었으며, 학교급식, 단체식사 등 제도권에서도 이를 받

아 들어 크게 확산되고 되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틈새에서 출발한 유기농운동이 우리의 생명과 생태계를 살리고, 사회전체를 바꾸아가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그런 의미에서 홍살림은 향후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선구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은 장래 "한반도의 유기농화", 이 홍살림의 슬로건이 현실이 되어 가는 도정에 어느새, 유기농이 농업의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이로운 풍경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친환경농업인의 동반자 홍살림 25주년 축하

- 이등질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전국의 친환경농업인을 대표하여 홍살림 창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근 홍살림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홍살림은 지난 25년간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친환경 자재·인증·꾸러미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의 발전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친환경농업 확대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농업은 현재 벼랑 끝 위기 앞에 놓여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어 과수, 채소 농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12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TPP 가입 추진으로 인해 국내 농업은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농업의 마지막 희망인 친환경농업마저도 농가의 소득보장 미흡, 부실인증 등으로 인해 매년 농가 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저농약 인증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그 수가 더욱 큰 폭으로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인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정부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신뢰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확대 발전을 위한 친환경직불금 제도의 개편 및 확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으로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



대,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전면 개선,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의 올바른 도입과 정착, 농민을 위한 친환경농업협동조합 설립 등이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제들은 일부 지역, 혹은 특정 단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체 친환경농업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홍살림의 태동과 성장, 그 25년의 발자취가 여실히 보여준 것처럼 친환경농업인의 동반자로서 홍살림이 앞으로도 우리 친환경농업의 위기를 헤쳐 나가고 당면한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살림 창립 2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살림은 친환경농업 발전에 중심 역할

- 광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홍살림 25주년, 축하드립니다! 이태근 회장님을 비롯한 홍살림 모든 가족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의 홍살림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사에서 홍살림의 역할을 빼놓는다면 이야기를 제대로 엮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1991년 괴산미생물연구회로부터 출발한 이래 홍살림은 토종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자재 개발 등 친환경농업 발전에 꼭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왔습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토종종자 운동과 결합한 꾸러미 사업 또한 중

요하고도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93년 한살림 조합원이 되어 괴산의 눈비산마을(당시 충북농촌개발회)을 방문했을 때 열심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던 두 명의 연구원을 만나본 기억이 떠오릅니다. 마음속으로 그 분들의 연구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홍살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관심을 갖고 지역활동에 연관시키려 노력하게 되었고, 지자체 등과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홍살림의 연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에 논만들기'와 '노들섬텃밭만들기'역시 이태근 회장님과 함께 참여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홍살림과 한살림은 출발부터 함께 한 형제같은 관계입니다. 한살림과 홍살림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서로 결합돼 함께 활동해왔고, 이러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이 땅의 농업과 농민을 위한 활동에



함께 정성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업환경은 새로운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홍살림이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의 모습을 일구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활동영역을 개척하며 우리 농업 농촌에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살림도 기꺼이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한살림과 홍살림이 한 뿌리에서 자라난 형제조직으로서 형제애를 발휘하며 서로 지지하고 성원하는 관계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홍살림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홍살림 초창기부터 함께 해 오신 분들의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담습니다.

친환경농업에 큰 발자취 앞으로도 더 큰 활약 기대

1991년 괴산미생물연구회 초대 회장 김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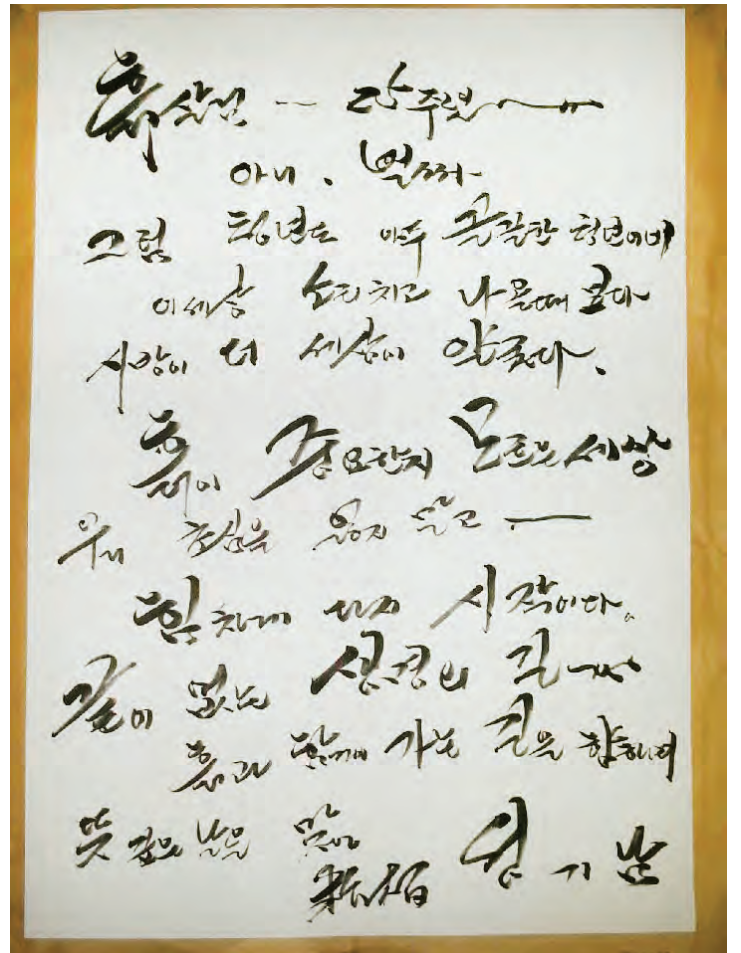
홍살림은 괴산 친환경농업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친환경농업 회원들을 양성해 친환경농업을 확장시켜왔다. 그만큼 홍살림 또한 번창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할 수 있겠다. 홍살림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유기농업의 과학화를 통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이 꽃을 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끝 없는 생명의 길 흙과 함께 가는 길

제1회 홍살림상 수상자 성기남

제1회 홍살림 상을 수상한 성기남 회장은 홍살림과 초창기부터 함께 활동을 해 왔다. 유기농업으로 고추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량 또한 관행재배 못지않음을 몸소 농사를 지으며 보여주고 있다. 홍살림 25주년을 맞아 멋진 붓글씨로 격려의 말씀을 건넸다.



홍살리기 운동 새 흐름 만들어가기를...

홍사랑 영농조합대표 이도훈

홍살림이 25년간 유기농업의 과학화를 위해 애써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청년이 된 홍살림이 앞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홍살리기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실제 우리 농장에서 10년간 유기농사를 지었는데 염류집적 등이 나타난다. 유기농업을 통한 토양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통한 새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생겼다. 또 농약성분이 나왔느냐의 여부로 인증이 결정되기 보단 토양의 질이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판단해 인증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우리 농민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홍살림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SNS 축하메시지

“앞으로 25년 한반도 유기농업화 이루세요”

박연수 유기농의 미래 홍살림에서 찾습니다.
 김영기 축하드립니다! 홍살림 식구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규성 홍살림의 시작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럽네. 이젠 청년 홍살림을 지켜보게 해주셔~~
 백승우 축하드립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우창 축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반도 전 국토의 유기농업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두박두박 유쾌하게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소정열 홍살리기 운동으로 평생을 바친 이태근 대표와 묵묵히 외길인생을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홍살림과 함께한 또 다른 이태근 님들이 계시기에 이 땅에서 숨 쉬고 있

음을 감사드립니다. 홍살림의 꿈이 세계로 확장되기를 기원하면서 창립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창길 25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유기농 발전을 위해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미래 25년은 홍살림이 한반도 전체의 유기농업화를 위해 더 큰일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숙주 축하드립니다.
 박성준 축하드립니다.
 편용길 25주년 축하 합니다. 계속 장족의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조인상 축하합니다. 벌써 이렇게 됐군요. 괴산에 있다 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발전에 정말 맘깊이 ♥♥♥ 축하 듬뿍입니다. 우수동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진정한 대한민국의 유기

농을 실현하시리라 믿습니다. 유기농 관련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계속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덕배 창립25주년을 축하합니다. 이태근 회장님과 홍살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창학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도숙 축하합니다.
 백혜숙 축하드립니다^^ 100년의 1/4 ... 홍살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중웅 홍살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돈 버는 농업·농촌을 위한 연계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김기현 축하드립니다. 가까운 곳에 홍살림이 있어 행운입니다♡♡
 최근식 자연의 순환과 함께하

는 홍살림, 유기농업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홍살림, 그 25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빈파 흙이 살아야 사람도 자연도 살 수 있습니다. 이룬 깨우침 주신 홍살림과 회장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5주년 축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미아 대한민국 농토가 모두 진정한 홍살림으로 이루어지길. 홍살림 25주년 축하와 함께 기원합니다.
 이영희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유기농엑스포까지 펼친 열정으로 유기농 대가로서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양승기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김형태 축하드립니다.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이준홍 축하드립니다.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전용표 홍살림 스물 다섯 번

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박경국 축하드립니다. 제가 도에서 농정과장을 할 때 창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엔 참 생소한 분야의 창업이었는데 이태근 회장님 열정과 노력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네요. 거듭 축하드립니다.
 유병선 축하합니다!!!
 송현강 항상 그 자리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송유정 자랑스럽습니다. 지역의 자랑 홍살림의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James Kim 축하와 더 큰 격려를 보냅니다
 김래희 축하와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송기호 홍살림의 걸음걸음 응원합니다
 안용수 축하드립니다^^



흥살림 25년과 유기농업

대담자 최양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문
조희부 눈비산마을 대표
이태근 흥살림 회장

일시 5월 30일
장소 흥살림 토종농장



Non-GMO로서 유기농이 주목받는 시대

이태근 회장(이하 이) 먼저 흥살림 25주년을 맞아 이렇게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기농업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현황, 그리고 그 속에서 흥살림이 해 온 역할과 앞으로의 기대 등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양부 박사(이하 최) 최근 쿠바와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유기농업 유통업자들이 쿠바의 농산물을 탐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요인 때문이 아니라 GMO(유전자 변형 식품)가 보편화되면서라고 합니다. Non-GMO는 유기농만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유기농산물이 믿을만한 제품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유기농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시장 자체가 날아갈 상황일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구환경을 살리고



유기농 본연은 흥살림 인증 중심서 벗어나 지역적 탄력성 갖춘 새로운 제도 모색

건강을 살린다는 명목이 있었다면 이제는 GMO 대체 식품으로의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로 더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희부 대표(이하 조) 쿠바의 유기농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셈이군요.

최 러시아의 경우엔 러시아 전체의 유기농업화를 선언했습니다. 일체의 GMO 작물은 제외됩니다. 앞으로 러시아가 세계 최대 유기농산물 공급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중국은 GMO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인구 압박으로 인한 식량 수요가 크기 때문에 GMO를 가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GMO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움직임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입니다. 각 나라가 탄소배출 규제 등 실질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토양이 탄소를 흡수·보존하는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목표입니다. UN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리뉴얼해 2030년까지 새로 설정했습니다. 빈곤퇴치와 지역사회발전, 농업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해 2014년엔 '세계 가족농의 해', 2015년 '흙의 해' 등으로

정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생태유기농업, 지역사회농업의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이폼(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도 유기농 3.0을 선언했습니다. 인증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인 여건에 따른 유기농업 원칙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제가 5년 전 주장했던 한국에서 사과 유기농은 7~8월 고온다습한 시기 병충해를 막을 수 없으니 그 시기 1~2회 약을 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유기농업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자는 것이죠.

조 지역적 탄력성이라는 것이 조금은 애매모호하군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각 나라의 인증제도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조 인증위주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풍속·기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네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이런 변화에 찬성입니다.

최 인증만 획득하면 유기농이라는 것은 너무 형식화 된 측면이 있습니다. 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생태계를 살리는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증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 실제 저도 무항생제 인증

등을 받고 있는데 인증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인증 받으려고 따로 사람 1명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최 유기농업의 역설이 인증입니다. 인증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죠.

조 흥살림 25주년을 계기로 유기농 3.0을 토대로 한 기후 변화에 맞춘 인증제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군요. 실질은 살리고 형식은 줄이는 것을 흥살림 과제로 설정해 나갔으면 합니다.

최 한국 유기농의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실제 흥살림이 25년 동안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인증으로 인해 농민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기농업의 세계적 흐름을 통해 흥살림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흥살림 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 흥살림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1991년 미생물연구회로 시작한 초창기 10년은 생산 기반을 다졌다고 봅니다. 이후 2002년부터 최초 민간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 10년 간 현장연구를 통해 농민들과 협력해왔던 관계가 법을 기준으로 갖대를 들이대야 하는 인증기관이 되다보니 농민들과 갈등이 생기



흥살림 미래 25년 농생태학 영역 확장 유기농업대학원 설립·운영 희망

기 시작했습니다.

조 맞습니다. 흥살림이 유기농의 과학화를 지원하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인증제도가 생기면서 감독 기관이 되어 갈등이 많아져 안타까웠습니다. 한살림과 자매단체라 할 수 있었는데 인증 기관이 되면서 갈등이 일어났죠. 하지만 한편으로 흥살림이 한살림을 떠나서 전국적인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흥살림의 3차 전환점은 유기농산물 유통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2005년 흥살림 푸드가 만들어졌지만 유통에 대한 준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2009년에 이마트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과일 등의 기반이 갖춰진 것이죠.

조 흥살림이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나는군요. 농촌인력도 줄어들어가고 전통방식만을



5월 30일 휴살림 토종농장에서는 휴살림 25주년을 맞아 특별대담이 이루어졌다. 이태근 휴살림 회장(맨 오른쪽)과 휴살림이 충북 괴산에 내려와 첫 밭을 울리기 전 유기농업운동을 시작했던 눈비산 마을의 조희부 대표(맨 왼쪽),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농림해양수석비서관 최양부 박사가 휴살림의 25년을 돌아보고 한국 유기농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증 우선주의 벗어난 탄력적 운용 필요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눈비산마을의 조그만 사료창고에서 시작했죠. 25년간 풍파를 견뎌내고 유기농업에 큰 역할을 해낸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최 맞습니다. 유기농업의 초창기엔 유기농이 한방 같아서 사람 따라 처방이 다르듯 너무 막연하다 생각했었죠. 휴살림을 방문했더니 농학을 공부한 청년들이 농학을 바탕으로 유기농업에 뛰어 들고 있더군요. 당신들이 유기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 뒤로 인연이 이어져 휴살림 활동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휴살림이 우리나라 유기농업에 표준을 세우는 역할, 우리나라 유기농업을 세계에 내보일 수 있는 자존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휴살림의 25년 성장과정을 보니 전국적으로 유기농업을 하는 인력들에게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 우리 전통농업기술과 토종 등 우리농업의 원류를 찾는 역할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고민하는 것을 보며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휴살림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 우리나라 유기농 역사가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2000년대 초반 민간 인증이 시작

되고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정부가 농자재를 지원하면서 농자재 업자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농부들이 스스로 미생물을 이용해 퇴비를 만들다가 자재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정부의 과다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이 침체되면서 대단지 지원 등이 집중되면서 유기농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 유기농업을 담당할 주체가 중소 가족농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일종의 사업자금이었는데 이후 자재가 보조되었죠.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초창기 민간 스스로 유기농업을 일으킨 정신적·이념적 성격 대신 농가 소득 증대와 시장 개방시대에서의 경쟁력 등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왜 유기농을 해야 되느냐는 농업 현실에 대한 성찰 없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정신은 없어지고 사업만 남으면서 유기농업도 편하게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농약에 안주해버린 것이죠. 정부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이라 여겨집니다. 유기농업의 보급은 빨라졌으나 형식화, 관행화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유기농업 시작이 철저히 현대 화학농업 반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서 화학비료가 생태계는 물론 건강까지 해치는 것을 고발합니다. 이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이폼이 결성되면서 유기농업이 전세계적으로 표준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기농업은 빠르게 성장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화학농업에 대한 반성이 부분적으로만 있었습니다. 화학농업에 대한 대체, 대안 농업이 아닌 병렬적 개념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유럽의 활발한 유기농업 운동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계 소비 규모 측면에서 1%를 넘지않을 정도로 미비합니다. 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농업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주류에서 밀려나고립되었는가를 문제의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유기농업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철학과 정신은 쇠퇴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민들 스스로도 유기농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겨 걱정입니다. 최근 걱정되는 바는 장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초기 불황에는 유기농산물 유통이 증가하다 불황이 지속되자 유통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진정한 유기



유기농 시비 처방 등 과학적 접근 계획 중국·부탄·필리핀 등 아시아로 사업 확장

농업자만이 남지 않을까 여겨 집니다. 이럴 때 휴살림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봐야 할 듯합니다.

이 그렇다면 휴살림이 25주년 이후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 휴살림이 커지다보니 다중 이해관계자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로 엮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운동과 사업을 병행하다보니 가치관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일종의 성장비용입니다. 하지만 생태적 가치 등 큰 가치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내부적 교육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공유하는 마음가짐 없으면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휴살림 선언>과 같은 가치적 요소뿐만 아니라 농생태학 학문 영역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유기농업 전문가를 기본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공식적 교육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휴살림이 유기농업대학원을 설립해

보면 좋겠습니다. 협동체, 공동체 요소를 사업에 융합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조 휴살림의 25년을 돌아본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였습니다. 농민들을 과학적으로 돕기 위해 시작한 그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유기농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 휴살림 끈들이 중심으로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현장농민기술연구원 제도를 잘 운영해서 그 모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교류도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민들 기술, 휴살림 연구 기술이 잘 융합되어 휴살림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내부적으로 농림부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유기농 시비 처방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유기물에 따른 토양 변화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모델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부탄, 캄보디아 등과도 교류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필리핀에 퇴비를 수출하고 기술 협력 관계를 맺는 등 동아시아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현장농민연구원 제도 등을 체계화하고 농업과 과학을 결합했듯이 농업과 예술을 결합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유기농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중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리 이방현 기자

제3회 수상자 김봉기 회장

직접 미생물 배양하는 등 30년 친환경농사

“우리 농장에 대해서만은 내가 최고의 박사다.” 흥살림상 제 3회 수상자로 선정된 김봉기 씨는 청주에서 쌈채소를 주작물로 농사 짓고 있다. 김봉기 씨는 자신의 땅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농학박사가 오더라도 절대 지지 않을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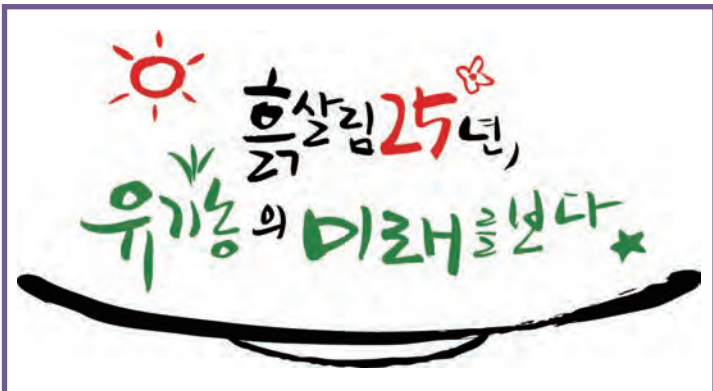
김봉기 씨는 1980년대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 초기엔 친환경농자재가 거의 없었다. 가장 기본적인 자재라 할 수 있는 미생물도 손수 배양했을 정도다. 쌀밥을 지어 부엽토 위에 하루 정도 놓아두어 유용한 미생물들이 밥 속으로 스며들면 이것을 쌀겨와 섞어 발효시켰다.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는 목초액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 흥살림 유기농 교육을 통해 인연을 맺고 흥살림의 미생물들을 활용하고 있다. 김봉기 씨가 실험해왔던 친환경적 농법은 다양하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솥을 이용하는 것이다. 흰가루병 방제를 위해 폐솥을 20평당 한포 정도 뿌리길 3년 정도하니 병 발생이 확실히 줄었다. 양분투여를 위해서는 인근 된장공장에서 받은 콩 삶은 물을 사용한다. 콩물과 막걸리, 당밀, 청초액 등을 사용해 액비를 만든다. 생선액비의 경우에도 직접 제조하는데 양미리 또는 콩치와 당밀, 막걸리, 흥살림 빛모음, 흥살림 활인산, 흑설탕 등을 이용해 배양하고 2,3년을 묵혀 사용한다.

처음 흙을 만들 때는 인분이나 가축분 등 질소질 원료를

넣고 200평에 버섯박 10톤을 투입한 후 평평하게 깔아준 뒤 뒤집기 작업을 한다. 여기에 흥살림 미생물을 뿌리고 하우스 밀폐 후 온도를 높여 발효시킨다. 3일 후 쫘하얗게 곰팡이가 올라오기를 몇 차례 반복하면 흙 만들기 작업이 완성된다. 이후 밀거름을 새로 줄 때는 흥살림 균배양체 등을 활용하고 있다.

30여 년의 세월동안 유기농업을 고수해온 김봉기 씨는 인근에 사는 농부들에게 유기농업을 전파하며 뿌리공동체를 일구어 오기도 했다. 비단 이웃들에게만 친환경농업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대학에서 원예학을 공부시키고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 유기농업은 대를 이어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일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흥살림상



김봉기 회장

시(詩)가 있는 풍경

감자꽃을 따내며

오철수

감자꽃이 피면 꽃을 따줘
꽃으로 가는 양분을 뿌리로 가게 한다
물론 감자의 뜻은 아니지만
제 꽃을 죽여 자식을 실하게 한다는 사실이
새삼 얼마나 강력한가
내 어머니가 떠오르고
내 처도 꼭 그렇다
그래서 감자꽃을 따다보면
꽃이었던 젊은 내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꽃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한
내 어리석은 삶이 떠오르는 것이다
실제로 한 천 평 정도 가득 핀 감자꽃을 보

노라면
엄연한 것이다 실한 감자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꽃을 따야한다
어떤 존재인들 꽃을 팔아 살겠는가
꽃은 삶을 영속하는 한 계기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자식을 위해
제 꽃을 지운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엄연한 일처럼 했을 것이다
큰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오철수 시인은 - 1958년생, 인천 출생, 1990년 전태일 문학상 수상, 민족문학작가 회의 회원, 시집 <독수리>, 산문집 <시로 읽는 니체> 등 다수. 현재 흥살림 농장 귀농 연수 중.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한낮 더위가 여간 아니어서

한낮 더위가 여간 아니어서 새벽같이 일하고 나면 도둑기는 좀 늦게 시작합니다. 귀가도 늦어지기 때문이지요. 이걸 알씨는 배의 습기도 빠르게 달아납니다. 거칠없이 자라는 잡초를 베고 뽕아 풀하는 일도 매일 바쁩니다. 우리는 사나고 더위를 피하 살지만 산과 들에 그득한 풀과 나무들은 이더위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아들이지요. 한낮 지켜서든 앞은, 지친 사람 처럼 애처롭습니다. 한낮 더위를 무릅쓰고 일하는 사람들 처럼! 그래도, 실없이 시름 많은 사람들의 처진 어깨를 보는 것 보아야 낫지요. 저물도록 일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 부릅니다. 밤도 많고 잠도 깊을 겁니다. 두더위에 건겅하하시기 바랍니다.



칼슘먹고 튼튼!

액상 키토산 제제



튼튼칼 1L, 10L

- 수용성 칼슘공급 칼슘 17%
- 무농약재배까지
- 속효성 칼슘공급
- 아미노산 첨가, 생육 촉진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유기튼튼칼 500ml

- 100% 수용성칼슘
- 속효성 칼슘공급
- 칼슘 보유력이 약한 토양에 효과적
- 공시-3-2-58



흥살림 키토산 1L, 10L

- 감각류에서 추출한 키토산 함유
- 빠른 흡수, 생육 촉진 및 내병성 증진
- 유기미생물 증식에 효과적
- 공시-4-1-27

친환경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품





- 1991년 6월11일 -

인류생명의 원천인 농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고, 농업의 모습 또한 건강한 식량생산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화·공업화의 추세에 따라 산업폐수와 생활오수가 농촌의 하천과 흙을 오염시키고 있고, 상업적 가치와 편리만 추구하여 진행된 농업정책과 영농방식은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약품으로 토양의 생명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땅이 죽으면 농사가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오염된 땅은 독이 된 식량을 인간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 밥 없이도 인간이 살수만 있다면 이 같은 농업과 농업생태계의 파괴를 절박한 과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 그런 인간이 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는가?

따라서 농업의 토대인 흙을 살려 건강한 농업생산활동과 이를 신명나게 하며 살아가는 농민농촌의 살림은 가장 시급한 이 시대의 과제이다.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은 불씨라도 되고자 우리는 흙살림연구소를 창립한다. 흙살림연구소 우리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생명을 지키며, 우수한 미생물농자재를 연구, 개발, 보급하여 생산자 농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공생순환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자신의 삶과 논밭에 실천하려는 농민생산자의 고심이 있는 곳에 흙살림연구소는 항상 함께 있고자 한다. 농업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며 모두가 떠나려는 농촌에 지금 남아 있는 농민형제들과 농촌에 애정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으로 흙살림연구소가 가고자 하는 바가 알찬 결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흙살림연구소 창립을 밝히는 바이다



흙살림 일꾼의 다짐

흙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가꾸어 나갈 때 생명의 어머니인 흙은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흙살림 일꾼이 되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흙살림 운동을 해 나갈 때 생명의 땅, 흙을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흙살림 일꾼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흙살림 일꾼은 흙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2. 흙살림 일꾼은 더불어 사는 농촌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3. 흙살림 일꾼은 스스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을 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4. 흙살림 일꾼은 흙의 건강 상태를 1년에 한 번 이상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흙살림 일꾼은 흙의 생명체인 미생물, 지렁이, 곤충들의 활동을 소중히 여긴다.
6. 흙살림 일꾼은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품종의 선택, 생물학적 방제, 적절한 윤작 등을 실시한다.
7. 흙살림 일꾼은 제초 관리를 위하여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다.

흙살림창립25주년을축하드립니다!!

대림프라스틱 소형용기 Tel 031-366-0171		압선바이오켄 031-416-6155	(주)대창화학 02-715-0046	경기도유망 중소기업 2015-080 고려포장(주) 골판지박스 칼라박스 전문생산 각종 농산물 박스 주문제작 (과일, 야채, 건강식품 등) 상담문의 환영 : 031-663-9151 www.packageocean.com
이일웅 참외 (경북 성주)	김광진 대추 (경북 경산)	이원용 (충북 괴산)	이우성 (충북 괴산)	

“세계 10대 슈퍼푸드 마음껏 즐기세요”



블루베리 강만식(충남 공주)

“세계 10대 슈퍼푸드인 블루베리, 무농약으로 드세요.”
충남 공주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는 강만식 씨는 블루베리 열매를 수확하는데 한창이다. 10,000㎡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에서는 진한 보랏빛의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매달려있다. 13,000㎡의 노지에서는 슬슬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다. 2010년 블루베리를 시작할 때부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애지중지 키워온 것이다.

■ 과수 창업농에 도전하다
강만식 씨는 원래 운동을 좋아해 20대에는 체육관에서 일했다. 이즈음 누나가 과수원을 하고 있어서 가끔 일손을 돕곤 했는데 재미가 쏠쏠했다. “나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또 내 손길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기분도 좋고요.”
그래서 2000년 과수 전업 창업농에 도전했다. 처음엔 한국단감연구소에서 나무의 생리·생태를 공부하며 시작했다. 단감을 비롯해 매실과 배 등을 모두 무농약으로 재배했다.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니 나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한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수형으로 키우고 수확의 시기와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 블루베리도 나무다
2000년 블루베리를 시작할 때는 전국의 블루베리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다. 나무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에 블루베리를 키우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지·전정을 통해 수형을 만들어갔다.
2년 전엔 미국의 시애틀과 오리건의 블루베리 농장을 견학하면서 전문을 넓혔다. 급기야 작년에는 미국에서 4개월간 현지의 농부와 전문가들과 함께 2백만㎡(62만평)의 땅을 블루베리 농장으로 개간하는 작업을 통해 블루베리를 더욱 잘 알게 됐다. “작년 미국 농장경험을 통해 블루베리도 나무라는 것을 깨우쳤죠. 제가 혼자서 만들어 온 수형과 토양이 전문가의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 때를 맞추는 것이 중요
블루베리 농사도 다른 과수와 마찬가지로 전지·전정의 기술이 중요하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시에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수다. 농부의 기술 수준에 따라 수확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다.
강만식 씨는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강만식 씨는 비가림을 통해 블루베리의 당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기 잘 맞추어 흙살림 ‘잘들어’로 충해 방제 큰 피해 없이 원하는 수량 거둘 수 있어 행복

위해 농장을 둘러싸고 있는 야산의 부엽토와 마사를 섞어 흙을 만든다. 한약 찌꺼기로 액비를 만들어 미량요소를 공급한다. 병충해 예방은 보통 4차례의 방제 작업을 거친다. 1차 방제는 꽃이 피기 전 흙살림의 충해용 친환경자재인 ‘잘들어’와 친환경식물보호제인 ‘토리’를 사용한다. 2차는 개화 후 바로, 3차는 2차 방제 후 보름 지나, 4차는 수확하기 보름 전에 ‘잘들어’ 등을 사용한다. 시기를 잘 맞추어 흙살림 친환경자재를 활용하면 병충해 피해를 입지않고

넘길 수 있다고 한다.
■ 맛을 높이기 위해 애쓰다
“블루베리도 비가림을 통해 당도를 높이는 등 품질향상을 꾀해야 한다.”
올해 블루베리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블루베리를 싼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됐지만 농가들은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혹독한 시기이다.
강만식 씨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블루베리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농가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와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6월 11일 25주년을 맞이하는 흙살림에 축하의 말을 건넸다. “흙살림이 친환경 기업으로서 농민과 소비자들을 많이 도와줘 큰 기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나 또한 흙살림에 좀 더 좋은 열매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글 이방현 기자



강만식씨는 블루베리의 수형을 잡아주기 위해 줄과 대나무 등을 이용한다.



6월 흙살림 농산물 안전성 분석 결과 - 잔류농약 불검출

가지(김기민), 느타리버섯(오춘식), 대추방울토마토(송인훈, 양창근, 이명순, 이한출, 강사영, 이용희), 방울토마토(이경선), 백오이 (이일구), 브로콜리(이태영), 블루베리(강민식), 새송이버섯(이수일), 토마토(이재민, 조선희, 윤성수), 피망(오세훈) ()는 생산자 이름

흙살림 유기농연구소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흙살림에서 취급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성분을 320항목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

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유기농 핫감자 예약 판매

흠살림 농장에서 직접 기르고 수확한 유기농 핫감자를 예약판매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영양 만점 간식입니다. 어른들이 먹기에도 맛이 좋습니다. 6월 15일부터 10kg 단위로 출고할 예정입니다. 흠살림 농장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오철수 시인이 감자꽃을 따내며 써 내려간 시도 감상해보세요.(10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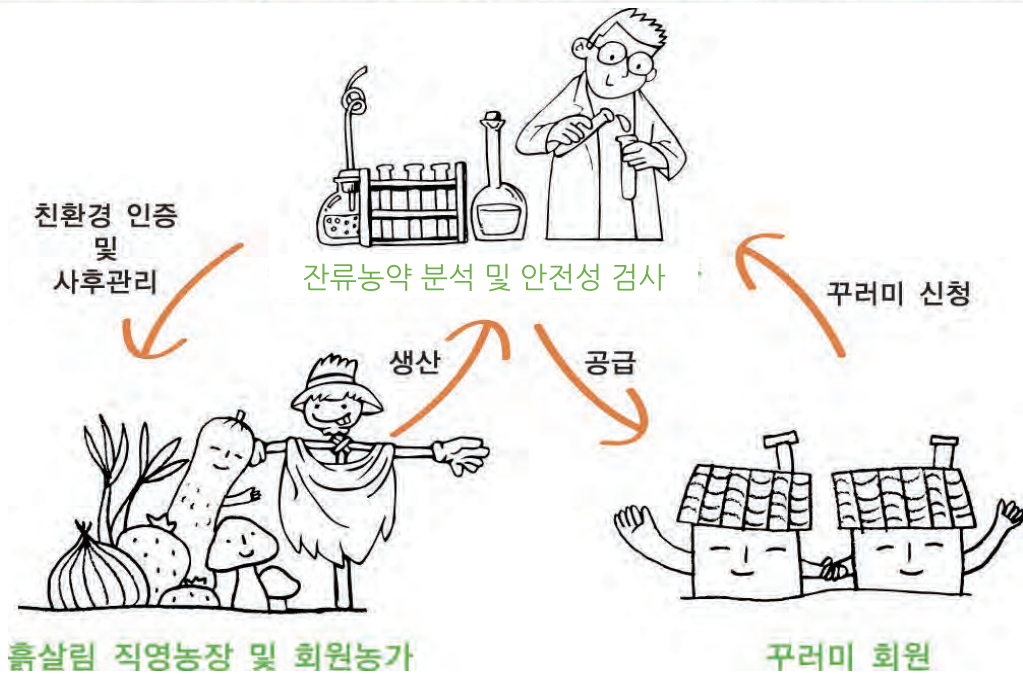
유기농 매실 5kg 예약받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13년째 유기농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최창한 농부의 매실을 예약판매합니다.

구분	크기	가격(원)
소	23mm 이상	19,500
중	30mm 이상	24,500
대	33mm 이상	29,500
특대	36mm 이상	36,500
유기농설탕 5kg		14,900원

유기농 핫감자 · 매실 예약 문의 043-212-0935

흠살림 농산물 직거래 농장에서 식탁까지



6월의 생활꾸러미 예정 품목

6월 1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들깨가루	1봉
수제비	500g
전병	1봉
버들송이버섯	1팩
애호박	1개
두부	1팩
숙갓	1봉
조미김	1봉

6월 3주차	
품목	단위
구운유정란	6구
두부	1팩
콩국	1팩
꼬시래기	1kg
연근	1봉
로메인상추	1팩
오이	1팩
죽순	1팩

6월 2주차	
품목	단위
청란	10알
두부	1팩
가자미	1팩
무	1개
찰수수	300g
가지	1봉
참나물	1봉
실파	1봉

6월 4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두부	1팩
아욱	1봉
무말랭이	1봉
어린잎채소	1팩
고추잎	1봉
사과즙	5봉
도토리묵	1봉
오이	2입
강낭콩	1봉

※ 품목과 단위 내용은 산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꾸러미 연락처 : 043-212-0935**
<http://shop.heuksalim.com>

꾸러미 안내

- 공휴일이 있을시 공급일 변동이 있습니다.
- 5주차는 쉽니다. 꾸러미는 매월4회를 지킵니다.
- 다음주 부재시 연기신청 및 신규신청 마감은 매주 수요일입니다. 계획적인 운영을 하면서 회원님 불편을 줄여가고자 마감일정을 정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흠살림 꾸러미 물품은 받은 즉시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 품목 품질문제 발생 시 기한 내 연락바랍니다.
- 품질문제 접수기한

- 1)도착일로부터 다음날까지 : 신선식품 (과일류, 꾸러미, 채소류, 두부, 유정란, 냉장/냉동품)
 - 2)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 일반 가공식품, 곡류
- 자동이체 출금일은 매월1일 (미납시 10일)입니다. 매월 말일 출금통장의 잔액을 확인해주세요. 자동이체 중단신청은 매월 25일 이전입니다. 25일이후 중단신청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꾸러미 회비는 선납이며, 다른 농산물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 자원순환 실천 - '냉매회수' 냉매를 20개 이상 모아 연락주세요. 반품 접수받습니다.(우체국 택배)

이제 장보러 가지 마세요
꾸러미하세요

· 꾸러미 상담/주문전화 :
043-212-0935
shop.heuksalim.com

꾸러미란 어머니가 싸주시던 보따리를 매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직거래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철 농산물이 매주 배달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꾸러미로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장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1주일 먹거리가 택배로 배달됩니다.

생활꾸러미

월4회 10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방사유정란, 우리콩 두부,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채소꾸러미

월4회 60,000원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꾸러미로, 유기농 무농약 채소로만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과일꾸러미

월2회 80,000원

국내산 친환경 과일로,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제철과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송 : 매주 목요일

차레꾸러미

50,000원

차레상과 제사상에 올리는 대추, 밤, 배, 귤 등에 사과를 더한 친환경 차레 꾸러미로 초상님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 발송 : 주문시 발송



husallim 창립 25주년을 맞아 husallim 쇼핑몰에서는 재미있는 삼행시 짓기 감사 이벤트가 펼쳐졌다. 웃음이 절로 나는 글부터 시작해 유기농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진중한 글까지 참으로 다양한 글들이 올라왔다. 행사에 참여한 분들의 삼행시를 실어 husallim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본다.

cali2000 흙에 살리라 님과 함께
sahong 유기농 과학화를 이끌어온 husallim의 25년 기술의 연구와 교육, 자재와 인증, 분석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환경을 살리기 위해 달려온 그 길 참 아름답다 친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데 힘써 온 husallim! 경사스런 스물다섯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6월 11일
 흙에서 태어났으니 살면서 늘 감사해야겠지요 임무라 생각하고 흙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devilkim032 유시진 대위가 husallim을 기다려왔습니다 농담 아니지 말입니다! ^^
mks0808 - 친절하 Husallim 농부님들! 환경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멋쟁이! 경제도 살리고, 흙도 살리는 Husallim 파이팅!
khessego 흙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임무이지 책임입니다!
lovenoh 유기농업을 하려면 기본 개념부터 바로잡고 농사는 하늘과 땅이 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supiabmi 유기농! 그거 참! 힘들지요~ 기본적인 마인드는 물론 자연과 농부의 땀과 정성이 듬뿍 필요하지요 ^^ Husallim이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핫팅!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nanaosj 유기농살림이 Husallim 기나긴 여정을 걸어 25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계속 유기농을 지켜주세요~!!
wndidy 흙에서 키우고 건강히 자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시는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살아있는 제철 유기농 농산물의 꾸러미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선물같은 흙!살! 림과 함께 한 이후로 풍성해진 식탁 위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Husallim의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지금처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unbj8254 흙과 함께 살아가는 임신배수
 흙과 함께 놀던 옛 동무는 어디로 갔나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동무들이 너무 너무 보고싶다 임과 함께 흙에 살던 옛 동네에 모여 추억을 풀어보자
qortmddbs Husallim 꾸러미??~ 흙 살림에서 친절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은 물론~ 우리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줄 건강한 밥상을 지켜드린다고 전해라!~~ Husallim 꾸러미 핫팅! Husallim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allehouse Husallim 꾸러미로 차린 밥상! 내몸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주었으니 임아! 감사할 따름이야
leeilju 흙은 만물의 어머니요, 생명의 젖줄이니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위해 땅을 가까이 하라 임수의 푸르름 속에 걱정과 근심을 버리는 나는 자연인이다!
janggh74 Husallim 꾸러미 애용해서 살림이 좀 나아지셨나요? 임대 아파트를 떠나서 내집 장만 했소이다
 유기농 음식(야채)을 먹고 기력 회복하여 농업 정책 장려하세~~
yhaijin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살아가며 좋은 농산물 먹는 것도 복중에 복 임과 함께 아옹다옹 사는 우리가 제일 행복합니다
rightgom Husallim에서 흙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로 살림에 꼬~옥 필요한 것들만 준비했으니 임자 이제 먹을거리는

걱정없겠오~!
v2gan Husallim 푸드와 함께라면 살림걱정 끝! 유기농 농산물로 건강은 UP! 임무완수!!
gidrl 흙냄새 파묻혀 살고싶네 임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맛있는 요리를 즐기면서 행복한 삶 꾸리며 건강한 삶의 미소를 짓네
802dh Husallim 꾸러미를 통해서 살살 입맛이 살아나고 있어요! 님들과 함께 같이 이용하고 싶어요!
adchoi012 유기농을 먹으면 기가 살아나는 것은 기본이고 농산물이 더 건강해집니다
sgburi Husallim 삼행시 이벤트 참여하는데 삼겹살세트 주시

흙이 전하는 건강한 선물 살이 되고 피가 되니 림(임)금님 밥상 저리 가라

면 안되요?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서 그래요. 삼겹살세트 주시면 안되요? 임금님 밥상처럼 먹어보고 싶은데 삼겹살세트 주시면 안되요?
ajmd4135 유기농이 뭐냐구? 기실 농사의 근원이지
plivia 유산소운동을 하고 있다 기왕이면 식이요법도 겸하면 농수산물 중 제일은 역시 고기인데...
 친척집에 방문할 때도 환자 방문안을 갈 때도 경사스러운 일로 갈 때도 Husallim 과일 꾸러미
dalem443 흙냄새 나는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적 그 마음처럼 임의 건강만이 큰 바람입니다.
 Husallim물에서 장을 보다보니 살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물론 임금님처럼 처먹고 더 짙 거지만
sim1022 흑돼지 삼겹살 링딩동 링딩동~
nannaya790 유기농 먹거리

의 선두주자는 누굴까요? 기존의 먹거리와 차별화된 그곳은 어디까요? 농부의 마음과 같은 Husallim~! Husallim의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basicl 흙수저, 금수저 나눌 필요없는 살맛 나는 세상 임박하도록 우리가 만들어보세
sunshine 친한 친구랑 함께 환상적인 경험 할래요 경운기 태워주세요.
brutus01 친구들과 뛰어놀던 어린 시절 추억이 머물던 환경이 이제는 그림습니다 경운기 타고 놀던 그 곳이 이제 차량만이 가득 차 있네요.
 Husallim 꾸러미에 담겨온 싱싱한 쌈채소 하나 살짝 씹어서 한 입 베어물면 신선한 여동생과 함께 나누고픈 마음이 절로 나.
whitwylac 흙에서 온 착하고 건강한 소식들로 살림하는 재미를 알아가요~ 임금님 밥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viga7522 흙에서 유기농으로 태어나~ 모든 가정의 건강한 살림과 건강한 육체 정신을 책임지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 Husallim 파이팅!
 유기농과 함께 기차의 연결고리처럼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합니다 Husallim~~~
cschoice 유쾌하고 기분좋은 농촌만들기는 유기농이 답이다
msilver2000 유치원에서 하원한 아들 기똥차게 Husallim 과일 먹으며 "엄마~ 이거 Husallim까지?" 농부들이 키운 맛~있는 유기농 채소 과일 딱~알아보는 센~~스
 친구와 함께 환경을 상대하며 경험해 보라~ 친환경 Husallim
starlit 흙에서는 농부들의 정성어린 손길들이 살림살이나

아저도 흙에서 온 먹거리들을 위해 땅을 위해 좋은 것만 드리겠소.
 흙이 묻어나는 신선한 채소 과일 살~살 애벌레 등 곤충들은 골라내서 흑~~ 털고 먹으니 임도 건강~~ 나도 건강~~ Husallim 좋~~다
 유유자적 흘러가는 구름처럼 느리지만 기쁨넘쳐 웃게되는 그날 올 때 알게되리 농사법은 유기농이 사람 지구 살리는 법
 친한 친구 아프다는 소식 듣고 마음 아파 환경파괴 지구 몸살 인류건강 위험하네 경청하세 자연에서 알려주는 건강비법
jetajme07 흙사러 왔어요 살아있는 흙을 만들기 위해 25년간 노력해오심에 감사드려요 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유기농은 없다라는 기운빠지는 소리 들을 때마다 농민들과 Husallim을 떠올리며 힘을 냅니다 함께해요 ^^
 친환경이라는 건 단순히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을 사먹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 생각합니다 경솔하지 않은 소비,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나와 지구를 살립니다
g13aaaa 유~하게 살자 기를 쓰고 독하게 살아봤자... 그러다가... 농사 진다...
ysjpuhaha Husallim에 도착했다 살림이 풍부해진단다 또 미래의 임자(반려자)도 좋아할 거란다
 유기농의 자부심을 Husallim은 지키고 있었다 한 기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환경을 생각하자
 친구가 Husallim에 감자 캐러 가자고 한다 환경보호캠페인도 하고 감자도 캐고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가는 거란다.



한국생명과학고 현장실습교육

한국생명과학고(경북 안동) 청년리더 특별반 학생 12명이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 4박 5일간 괴산군 불정면에 위치한 휴살림 토종농장에서 현장실습교육 친환경시설채소 재배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들 특별반 학생들은 농사에 뜻을 두고 있는 젊은 영농 후계자들이다. 이번 교육은 미래의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과 재배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할 수 있겠다. 이번 교육생들을 인솔한 권택기 선생님은 “미래의 농업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5월 휴살림 주요 활동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3·17·31일	보은	교육	40	보은군친환경농업대학
3일	청주	방문		캠보디아 농가 단체 방문
4·12·19·26일	봉화	교육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강소농교육
4일	청주	협약식		충북친농연과 휴살림푸드 MOU 체결
5~8일	청주	행사		롯데아울렛 휴살림 큰장터
4·19일	제천	교육		제천시 귀농인 대상 유기자재·병해충 교육
9~13일	필리핀	컨설팅		바나나농장 유기자재 및 논농사 기술 컨설팅
10일	울산	교육		울산북구청
11일	보령	교육		유기자재만들기
11일	괴산	견학		김제농업기술센터
13·20·27일	서울	교육		광진구 도시농업 강의 및 현장지도
20~22일	괴산	교육	7	현장실습교육(WPL) 귀농인 과정 2차
23~27일	괴산	교육	13	현장실습교육(WPL) 고등학생 과정
27일	안성	회의		유기농업학회 토론회
28~29일	괴산	교육		실전농부학교

■알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휴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밀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지 제작, 토종씨앗보존 및 전파 등 우리 휴과농업과 환경

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 (사)휴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

■5월 휴살림 후원회원 가입자 명단

김규운(충북 괴산), 이영희(충북 충주), 심정섭(충북 괴산), 권택기(경북 안동)

■휴살림 후원회원 명단

가림다마을영농조합, 강명임, 강사영, 강승희, 고창국,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영삼, 김광부, 김기연, 김남운, 김동연, 김동진, 김명실, 김병수, 김봉기, 김생수, 김수철,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곤, 김종현, 김준배, 김중상, 김홍대, 김행숙, 나기창, 나종연, 도명수, 라병현, 라양채, 라영환, 류훈희, 무지개농장, 민병용, 민성기, 박기활, 박동윤, 박래훈, 박미숙, 박미영, 박상일(서울), 박상일(해남), 박안필, 박영구, 박의준, 박정국, 박종삼, 박종수, 박종원, 박종화, 박준순,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배은아, 백미숙, 백운남, 백은숙, 서성내, 서순악, 석종욱,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성윤제, 송기봉, 송동흙, 송영환, 송인훈, 송정호, 송지은, 신문수, 신언관, 신인환, 신종하, 신치영, 신현식, 심민보, 심상준, 안용호, 안정택, 양병근, 어해용, 엄창근, 엄선업, 오과철, 오복수, 오수환, 원정희, 원희성, 우범기, 우종서, 육종식, 윤국현, 윤성희, 윤슬기, 이기출, 이명순, 이명환, 이민채, 이병오, 이성원, 이수일, 이연호,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종국, 이준규, 이채원, 이태근, 이필규, 이항순, 임동영, 임원택,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소애, 전흥탁, 정구홍, 정규원, 정규태, 정기인, 정기환, 정명순, 정방현, 정석조, 정쌍은, 정은, 정인숙, 정창환, 정청천, 조기진, 조복남, 조술, 조원희, 조중기, 주윤식, 진필경,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병국, 최서연, 최재학, 최춘식, 편용길, 한인성, 한정화, 함유경, 허상오, 허현욱, 홍석민, 홍승면, 홍용기, 홍종윤, 황대호

대신택배가 유기농업을 지원합니다

대신물류개발(주) 물류연구 개발 및 건설, 시설유지보수 관리

대신복합물류(주) 무역 유통, 복합운송주선

대신국제운송(주) 미국, 유럽, 아시아 국제화물운송

대신정기화물(주) 국내택배서비스, 노선(정기)화물운송, 제3자물류



대신택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327-6)

Tel. 고객상담실 043)222-4582 | 영업부 043)256-3211~5 | 대표번호 043)255-3211

Fax. 고객상담실 043)255-3220 | 영업부 043)256-3220 | 대표번호 043)255-3220

www.ds3211.co.kr



작물 충해 관리용 자재



각종 해충을 방제합니다.

500ml

잘붙어

친환경 전착제

- 강력한 전착력으로 각종 자재 사용 효율 **쑥쑥**
- 목초액이 첨가되어 약제 용해도가 높음.
- 천연황산가리 첨가. 가리와 유황의 동시공급



500ml

잘들어

목록공시번호 공시-3-5-7

- 천연식물 추출물로 인축독성에 안전
- 각종 해충에 대해 적용 가능



1L

청달래

목록공시번호 공시-3-5-1

- BT제재로 안전
- 나방 및 나비 유충 등에 효과적



10L

1L

탄탄탄

목록공시번호 공시-3-4-13

- 방선균에 의한 항생효과
- 발생 전 처리시 효과 증대



작물 병해 관리용 자재

병이 와도 끄떡 없도록!

250g

토리

목록공시번호 공시-2-4-58

- 식물 유해 병원균 억제 및 생육 촉진
- 곰팡이병, 균핵병, 녹병균 등 효과적 억제



10L

1L

앞살림

- 벼도열병, 흰가루병 방제
- 예방과 방제 가능한 작물보호제
- 농촌진흥청 특허 미생물(특허번호 100407074)

